

유틸리티

폴란드 원전 수출에 집중되는 관심

폴란드 원전 개발계획을 위한 LOI, MOU 체결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폴란드 Patnow 지역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와 산업부-폴란드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의향서는 ZE PAK(폴란드 민간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PGE(폴란드 전력공사) 양국 3개 기업의 CEO가 체결했다. ‘폴란드 에너지 정책 2040’에 포함된 기존 폴란드 정부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다. 기존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사안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마무리되었다.

연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개발 계획 마련 예정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내 소요예산, 자금 조달, 예상공정 등이 담긴 개발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설비 용량에 따라 수주 가능 금액 범위는 변동 가능하나 산업부는 최근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4기 기준 40조원 이상을 예상하는 모습이다. 폴란드 부총리가 LOI, MOU 체결 이후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개발 계획 마련 이후 최종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100%라고 답변한 부분이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주가 흐름.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

폴란드는 현재 운영 중인 Patnow 갈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기존 SMR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 대형 원전을 고려하는 중이다. 방산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LOI, MOU 체결과 이후 폴란드 부총리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자로 수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 수주 여부 또한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강제 요건은 아니지만 사고저항성연료,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등 EU Taxonomy가 요구하는 기술적 난제도 해결될 필요도 있다. 다만 향후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등 여러 이정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국내 원전 밸류체인 주가 재평가 흐름은 지속될 여지가 있다.

Update

Neut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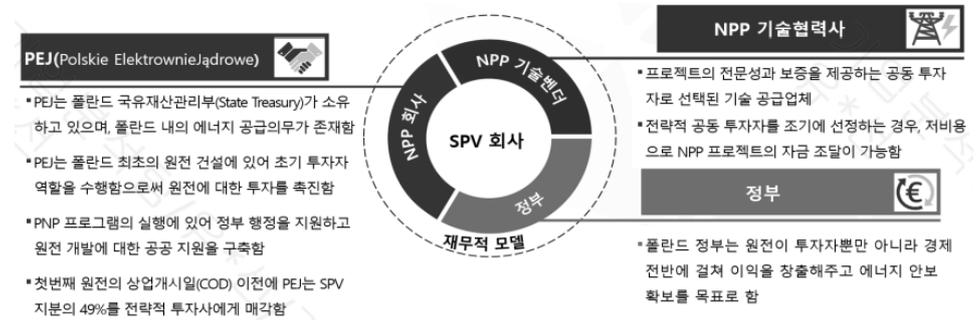


Analyst 유재선
02-3771-8011
jaeseon.yoo@hanafn.com

RA 채운샘
02-3771-7724
unsam1@hanafn.com

그림 1. 폴란드 PNP(Polish Nuclear Power) 프로그램 개요

사업 초기 정부가 SPV 지분을 모두 소유함으로써 국가가 원전 사업 관련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여 사업 참여에 있어 위험도를 경감 가능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하나증권

그림 2. 한-폴 원전협력 프로젝트 개요

2022년 8월부터 진행된 사안으로 2개월만에 LOI와 MOU 체결



자료: 산업부, 하나증권

그림 3. 한-폴 원전 협력 의의

최종 수주가 성사될 경우 UAE 이후 두 번째 한국형 원자로 수출



자료: 산업부, 하나증권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4.92%	5.08%	0.00%	100%

* 기준일: 2022년 10월 30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2년 11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2년 11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